진로 인터뷰에서 경험과 조언을 나누어 기록하는 법

똑똑 · 에디터 새봄 · 발행 2026.10.06

한 사람의 경로는 구체적인 단서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발언의 종류와 경험이 나온 조건을 함께 남깁니다.

똑똑 자체 작성 해설·활동. 가상 수치·문장·규칙은 해당 표와 단락에 명시했습니다.

쉬운 설명

직업인이 겪은 일과 우리에게 권하는 말은 달라요. 무엇을 언제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 적으면 경험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조언은 내 상황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요.

핵심

- 직접 겪은 경험·업무 설명·조언을 나누어 적습니다.
- 당시 조건과 발언 맥락을 남깁니다.
- 한 사람의 경로를 전체 직업의 필수 경로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발언 분류 · 경험에서 조언으로 바뀌는 문장 찾기

“입사 첫해에는 문서 정리 업무를 많이 했다”는 특정 시기의 경험 설명입니다. “문서 정리 능력도 준비하면 좋다”는 듣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모든 신입은 문서 정리만 한다”는 업계 전체에 대한 주장으로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요약할 때 이 세 문장을 같은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비교표 · 같은 인터뷰에서 다른 근거를 찾기

자체 작성한 가상 발언	종류	후속 확인
“2023년 제 팀은 4명이었어요.”	개인 경험	조직·시점·담당 업무
“관련 과목을 배우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언	어떤 업무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이 직업은 누구나 이 자격증이 필수예요.”	일반 주장	공식 자격 요건·업무별 차이

실제 직업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분류 연습용 예문이며 특정 직업의 취업 요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 대조 · 인터뷰에서 빠진 평소 업무 찾기

커리어넷은 직업정보와 직업인 인터뷰를 찾아볼 수 있는 진로정보망입니다.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읽었다면 공개 업무 설명도 찾아 일상 업무와 비교합니다. 자료의 확인 날짜와 선택한 직업명을 남기고 “인터뷰에서 알게

된 점 / 공개 정보와 같은 점 / 아직 다른 점”으로 정리해 보세요.

질문 고치기 · 답을 미리 넣지 않은 질문

“그 일을 하면 늘 보람 있죠?”보다 “최근 업무 중 보람을 느낀 장면과 어려웠던 장면을 한 가지씩 설명해 주세요”가 서로 다른 경험을 듣기 좋습니다. 소득·고객 정보·내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공개 가능한 업무 과정을 묻습니다. 실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공개 인터뷰를 분석했다고 밝히고 작성한 질문지를 실제 답변처럼 채우지 않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그분은 독학으로 시작했으니 이 직업은 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요약을 고치고 다음 인터뷰에서 물을 질문을 만드세요.

확인 설명

한 사람은 독학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모든 업무의 교육·자격 요건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독학 이후 어떤 교육과 도움을 받았고, 업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랐나요?”처럼 경로와 조건을 묻습니다.

인터뷰는 몇 명을 해야 충분한가요?

횟수 자체보다 질문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을 다룬다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서로 다른 조건의 자료를 추가로 비교합니다.

답변을 짧게 고쳐 써도 되나요?

직접 인용과 요약을 구분하고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록·녹음·외부 공개 범위는 각각 확인합니다.

원문과 출처

- 커리어넷 · 진로정보망 — https://www.career.go.kr/cloud/w/main/home: 공개 직업정보와 인터뷰를 찾는 출발점. 아래 발언은 실제 인터뷰가 아닌 똑똑의 가상 예문입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career-interview-evidence